

석유공사, 광구매입 1660억원 손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인수대금 지급 ... 폭등 예상 못했다 해명

한국석유공사(대표 서문규)가 2009년 페루 Savia Peru 광구를 매입하면서 국제유가 변동 리스크 보전방식을 적용해 16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2월 개인사업자로부터 페루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가변동 리스크 보전방식을 적용해 1660억원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페루광구의 최초 인수 가격은 4억5000만달러였으나 석유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른 추가 인수대금 지급을 약속해 1억5000만달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광구를 매입할 때 유가변동에 따른 추가 인수금액 지급을 적용한 경우는 없다”며 “유가변동 예측이나 순현재가치 평가를 실시했음에도 1660억원을 손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2월 국제유가는 38.78달러로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0>